

### 정축년 동안거 결제 방장범어

월하스님  
<영축총림 방장>



서용스님  
<고불총림 방장>



법전스님  
<해인총림 방장>



#### 머리 둘 달린 뱀을 보는 자는 죽은 자다

오늘 이 자리는 정축년 동안거를 맞이하여 배풀어진 자리입니다.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뜻을 알지 못함이라. 머리 둘 달린 뱀을 보는 자는 죽은 자다. 그런데 독사를 보아도 죽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아는 이가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되는지, 이 자리 가운데도 혹시 있는지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이 독사를 보아도 죽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이가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시오? 손을 드는 자가 없으니 더욱 더 의아증이 납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불에서 말하는 업장이 다 소멸된 사람이입니다. 즉, 생사를 초월한 사람을 말함이라.

只者柳頭弄傀儡 (지자부두동괴뢰)  
抽牽全鏡裏頭人 (추견전경리두인)  
只此更無回辟處 (지차경무회벽처)  
森森頭角畫不成 (삼삼두각화불성)  
只有文殊知此數 (자유문수지차수)  
前三三與後三三 (전삼삼여후삼삼)  
紫金光聚鶴山河 (자금광취학산하)  
天上人間氣氣多 (천상인간기기가다)

#### 한 시냇물은 본래로 마음이 없음이라

僧問雲門何處  
樹凋寒客時如何  
雲門曰云霧滿金風이라  
善語  
一溪流水本無心  
月出虛空照雪明  
普天難地生清風  
且聽石女唱巴歌

어떤 스님이 운문스님에게 물었다.  
"나무가 매마르고 일새가 질때면 어떠합니까?"  
"가을 바람에 완전히 드러 났느니라"

작어

한 시냇물은 본래로 마음이 없음이라  
달이 나오에 갈대꽃은 눈을 비쳐 밝도다  
하늘에 널리 땅에 두루해서 청풍이 일어남이라  
또한 돌 계집이 파초노래 부를을 들음이라

#### 대천세계 모두가 한터럭 끝일세

(良久 후)

누군가 이 산승에게 와서 이 풍변화두를 물어온다  
면 이렇게 대답해 줄것입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또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라."

風幡是心更何言  
六門林歇古今傳이라.  
若上絲毫塵 仍舊隔이라.  
大千沙界一毛端이라.

바람과 깃발이 마음인데 무슨 말을 더하라.  
여섯 문을 닫으면 말 옛부터 전한다네.  
털끝일세 인정하면 종전대로 막하니  
대천세계 모두가 한터럭 끝일세.

억(喝)!

6일 열린 한국불교학회 제23회 총회는 어느 때와는 다르게 불교계의 관심을 모았다. 오랜 연륜과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불교학회가 지난 1973년 창립된 이래 첫 경선으로 회장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제13대 회장에 선출된 김인덕교수(동국대 불교학·63)를 만났다.



- 새 회장으로서의 소감은.  
▲선임 회장처럼 한국불교학회의 최대 산실인 불교학회의 25년 전통을 잇고 한국불교의 주체성을 지키는 일꾼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 수요 인터뷰

한국불교학회 13대 회장 김인덕 교수

### “응용불교학 발전 기초 다질터”

- 임기동안 추진할 역점 사업을 밝혀주시지요.

▲무형의 불사를 하는 곳이 한국 불교학회의 임니다. 불사에는 장소, 사람, 재원이 필요하듯이 학회도 인재를 양성하고 발표의 장(場)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현재 2천만원이 소요되는 학회 운영비는 회비, 학술지 판매, 후원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기동안 종단·불교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학회 학술기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국내 타종교학자와 해외 불교학자와의 교류를 늘려 공동 연구도 추진하고 싶습니다.

- 한국불교학회가 지역과 학연에 폐쇄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의 학자들이 학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6일 열린 제25회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한 8명중 4명은 타학문 연구자였습니다. 또 타학교 출신의 불교학자들이 이사·정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학회 운영은 민주적입니다.

- 불교계 학술단체들의 주제 선정

해외학자들과도 교류

'학회 학술기금' 조성 노력

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교계에서 시급히 다루어야 할 학술주제를 듣다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불교계에는 수많은 종단이 있는데, 각 종단의 종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형편입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지만, 한국 불교의 미래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종단의 요청이 있다면 '평가와 제언'의 장을 내년 춘계 학술회의에서 마련하고 싶습니다.

- 교계에 응용불교학 연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불교학은 불성과 일반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불교적 사유를 실천할 때 완성됩니다. 응용불교학 연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성숙된 불교학 토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토대를 닦는데 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종욱 기자

지난 4일 MBC-TV의 PD수첩 3백회 특집 '석용산스님 이야기'는 불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성난불자들의 교계신문사마다 전화벨을 걸었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불교신문 기자로 근무할 수 있느냐." 교계신문의 추세 성을 가진 여기자들은 뜻밖의 수난을 겪어야 했다. 어쩌다 한번씩 간행되는 화보 잡지의 여기자와 석용산의 스캔들을 방영하면서 화면에 'OO불교신문 이OO기자'라고 내보낸 확인안 된 자막이 화근이었다. 불자들은 오보라는 해명을 듣고도 화를 식히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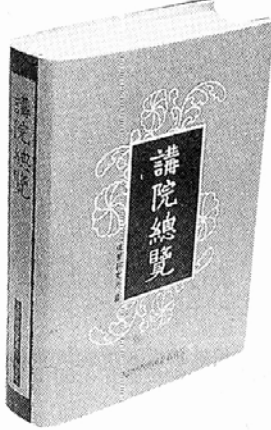
계를 받지 않은 사미승. 그러나 95년 박탈당한 것으로 총무원엔 밝혔다. 부처님께서는 여자와 재물을 경계하라고 누누히 일러주셨다. "차라리 불구덩이에 들어갈 지언정 탐욕을 즐기지 말라" "출가하여 세상의 쾌락을 탐해 사견(邪見)의 숲에 빠져들면 무수한 사람을 큰 함정에 빠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막행막식 승려들을 단속하기위해 조계종에는 호법부가 있다. 사미승이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어 큰스님 행세를 할때 호법부는 눈여겨 보아야했다. 그 직무태만이 오늘의 망신살을 부르지 않았을까. 또다른 망신살의 눈이 어디선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지 모른다. 호법부는 승종진장에 적극 나서야겠다.

소문에 의하면 MBC-TV는 불교소재의 PD수첩을 또 제작한다고 한다. 옛소문이길 바라면서 종교물을 다룰 때는 흥미, 폭로보다 진지하게 접근해 주길 당부한다. 그리고 오보는 즉시 정정 사과할때 더 공신력을 얻는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다.

이 두사건 뒤에는 공교롭게도 재산과 여자문제에 걸려있다. 범명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승적이 불분명한것도 공통점이다. 석용산의 경우 비구

### 목어 '망신살'



### 승가교육백서 '강원총림' 발간의 승가학풍 진작 획기적 자료

1천6백년의 한국불교 전통승가교육의 가교와 현주소를 담은 승가교육 백서 <강원총림>이 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1천여쪽 분량의 <강원총림>을 선보였다. 승가교육 현주소를 통해 종단미래교육의 기초를 다진다는 취지아래 2년여 작업 끝에 완성된 <강원총림>은 승가교육체계 확립과 교육방향 모색 및 연구를 시도했다. 총림은 전국 강원도의 성립배경에서부터 발전과정, 교육방법과 수행, 교제와 학제, 강맥의 전승관계, 강원이 불교

교육에 미친 영향 등을 담았다. 내용은 △강원개관 △사미 강원편 △사미나 강원편 △옛강원편 △역대 강사편 △부록 등 6개 목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별책부록으로 강원 졸업자 명단을 실고 있다. '강원개관편'에는 승가교육과 강원에 대한 5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이중 호탄스님(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의 '한국불교 강맥전승의 고찰'은 근·현대 강맥전승의 줄기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강맥은 6.25이전 영

호한영, 축원진응, 금병병연의 3대강백과 진호석연, 퇴경산노 등 7대 강사로 불려진 대덕들로부터 출발했으며, 이중 한영스님의 강맥만이 현재까지 가장 뚜렷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백양사, 동학사 등 16개 강원을 소개하고 있는 '사미강원편'과 '사미나강원편'에는 각 강원원의 역사와 역대강주 및 강사, 교과과정, 강원별 각종행사 등이 상세히 담겨져 있다. 구한말 이후 강원교육을 담당했으나 현재 강원이 아닌 사찰의 강원연혁과 관련자료도 눈에 띈다. '옛강원편'에서는 42개의 옛강원을 사찰 연혁과 함께 조명

강원발원·강맥 등 총정리 옛강원 42곳 소개 '눈길'

를 문헌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실고 있으며, '부록'에는 조선시대 사원교육과 한국불교 근현대 강원연표, 강원교육관련 자료모음과 강사비명이 실려 있다. 교육부장 항적스님은 <강원총림>발간은 전통강원교육이 점차 퇴색해가는 시점에서 학풍진작과 전통승가의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교육원은 <강원총림>의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 보완하고, 내년부터 선원·유원총림 발간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쉰(년세)은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머췌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태복호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흰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조(創出)시켜줍니다.

###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 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훌륭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 5. 기미가 있다. (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들려 있다. (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 15.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 16. 변비가 있다. ( )
- 17. 당뇨와 감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  
인천시 북구 삼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종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를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 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